

## 교육감 선거 갈수록 혼탁

오는 23일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6~7명이 출마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입후보예정자 2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운동원, 학교운영위원 등 5명을 지난 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입후보예정자는 지난 8월부터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 선거사무실을 설치해놓고 선거운동원 3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나타낸 학교운영위원들의 명단을 일일이 보고받은 후 직접 전화를 하거나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 광주선관위, 후보 1명 추가 고발

선거운동원 3명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후보예정자와 고교 동문 사이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기 3대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 400여 명과 통화하고, 호감 표시 정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구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입후보예정자에게 보고하고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학교운영위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30분께 학교운영위원 2명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식당으로 오게 한 뒤 입후보예정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고 식비 8만5천원을 대신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광주시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학교운영위원들의 식사 자리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또 다른 유력 입후보예정자와 교육공무원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모씨는 지난 8월 11~20일 3차례에 걸쳐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 중인 A씨가 주선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명함을 교부하고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전달했다"며 "광역단속반을 편성·가동해 후보자를 밀착 감시하는 등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순천 선암사 유혈 폭력 사태

## 재산권 분쟁·주지 해임 싸고 마찰 태고종 총무원측 70명 사찰 진입 3명 부상 입원...경찰, 26명 연행

종단(宗團)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태고종(太古宗) 총무원 측과 순천 선암사(仙巖寺) 측이 끝내 유혈사태를 빚었다. 태고종 총무원 측과 천년가람(千年伽藍) 선암사의 깊은 골은 재산과 인사 문제에서 촉발됐다.

◇총돌=8일 오전 7시30분께 태고종 총무원 측 승려 40여 명과 경기도 수원 B용역업체 직원 30여 명 등 70여 명이 순천시 승주읍 죽파리 선암사 경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3시간여 전부터 총무원이 선임 선암사 주지로 임명한 임승조 스님을 경내로 들여보내라고 요구했지만, 선암사 측이 거부하자 진입을 강행했다.

선암사 안에 있던 승려 100여 명은 총무원 측이 고공한 용역업체 직원 등을

저지했고, 양측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암사 서정기 스님 등 3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순천 중앙병원과 순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순천경찰은 전경 2개 중대 200여 명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승려 7명과 용역업체 직원 19명 등 26명을 연행, 사건정위 등을 조사 중이다.

총무원 측과 선암사 승려들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싸움을 중단한 채 경내에 함께 있으며, 일부는 절 밖으로 피신한 상태다.

◇발단=선암사와 총무원 측의 갈등은 재산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지난 8월 당시 선암사 주지인 권금용 스님은 "말사(末寺·본사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인

### 백제대 창건 '천년가람'

▲선암사(仙巖寺)=태고종림(太古叢林)으로,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 동쪽에 위치한 고찰(古刹)이다. 백제 성왕 7년인 서기 529년 아도(阿道)가 '비로암(毗盧庵)'으로 창건한 것이 시초다. 고려 선종 때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중건했고, 조선 영조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해방(海鵬)이 중창했다. 대한불교 태고종 중 유일하게 강원(講院)·선원(禪院)·율원(律院)의 3개 스님 교육 기관을 모두 갖춘 사찰이다. 현재 스님 140여 명이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로 10m·세로 3.8m의 해우소(解憂所·변소)와 고풍스런 멋으로 유명하다.

도선암(道洗庵) 4만8천여 평의 등기가 태고종 총무원장의 개인 재단에 넘어갔다"면서 총무원장과 임승조 당시 도선암 주지를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암사 승려들은 이어 총회를 개최하고, 선암사에 대한 총무원의 모든 결정이 무효라고 선포하면서 총무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총무원 측은 그러나 "권금용 스님이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종단의 연례행사인 '행자합동독도법회'(行者合同度法會)를 거부하는 등 해종(害宗) 행위를

했다"며 지난 8월31일 승려 자격을 정지시키고 주지 해임을 통지했다. 총무원은 또 9월8일 신임 주지에 임승조 스님을 임명했다.

하지만 선암사 측은 권금용 스님의 재신임을 요구하며 총무원에 반발해왔고, 오는 12월 총무원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향후 전망=총무원 측이 선암사 측의 저지를 뚫고 경내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측은 교무부장은 "정상적 채용 절차를 거쳐 임승조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면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종 승려가 더 이상 선암사에 발붙일 수 없도록 퇴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 측은 현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일부 승려의 선암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선암사 승려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금용 스님의 재산인 ▲도선암 등 재산 환수 ▲총무원장 사퇴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태고종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연행된 승려의 경우 폭력 혐의를, 용역업체 직원에게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추가 총돌을 우려해 경찰력을 당분간 배치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8일 오전 태고종 총무원 스님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순천 선암사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선암사 스님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ksj2229@kwangju.co.kr

## 윤관 전 대법원장 가족 교통사고 등 추석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윤관 전 대법원장 일가족이 성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후 6시15분께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95보 85×호(운전자 김모·50·노동) 1t 화

물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윤관 전 대법원장 가족이 타고 있던 서울 31마 46×호 에쿠스승용차(운전자 윤모·41·회사원)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윤관 전 대법원장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윤관 전 대법원장 부부와 윤씨의 아들 등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해남 현산에서 성묘를 마치고 인근 친척집에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올 추석연휴 기간(3~8일)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3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9명이 사망하고 372명이 다쳤다. 추석연휴 중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지난해 추석연휴(333건 발생, 사망 10명·부상 593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944) 김홍두



### "조부 묘엔 왜 안가냐" 시촌 흥기 폭행

○...술에 취한 50대 가 '선산에 성묘하러 가지 않는다'며 시촌 동생을 폭행, 경찰에 불구속 입건.

○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8·광주시 광산구 선암동)씨는 추석날인 지난 6일 오후 8시에 광주시 북구 용두동 거진마을 앞 가게에서 사촌동생 김모(48·광주시 북구 용두동)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는 것.

○...폭력행위 등으로 입건된 김씨는 "부모 묘에만 성묘를 하고, 조부(祖父) 묘에는 가지 않으니 하자 술김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1월 3일 동주출발(당일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기차여행 (무박 3일)**

● 최단일차 및 차수중 · 전사(전사)040440 · 062-366-1111 · 062-366-1111 (광주) 062-366-1111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 1인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 2인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 3인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 4인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 5인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 6인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 7인  | 40,000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85,000  |
| 8인  | 45,000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85,000 | 90,000  |
| 9인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 10인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오름이관광여행사** T: 062-1526-5530 / FAX: 062-1526-4755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질적인방으로

www.hanboGAGU.com

100%의 본보가구 100%의 재봉제작

한보가구 062-225-9100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100%의 본보가구 100%의 재봉제작

한보가구 062-225-9100